

커브 위력 입증·돌아온 칼제구...류현진, 가능성 보여줬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후 426일 만의 등판
볼티모어전 5이닝 9피안타(1홈런) 1볼넷 3탈삼진 4실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건강한 모습으로 빅리그 마운드에 복귀했다.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 첫 등판이었다. 류현진은 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9피안타(1홈런) 1볼넷 3탈삼진 4실점 성적을 냈다. 토론토가 3-13 대패를 당하며 류현진은 패전투수가 됐다. 지난해 6월 왼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던 류현진은 오랜 재활을 마치고 다시 빅리

그로 돌아왔다. 지난해 6월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426일 만의 등판이었다. 장타가 류현진의 경기 운영에 핵방을 놓았다. 1회부터 류현진은 2루타 2개를 연달아 허용하는 등 안타 3개를 내주며 2실점을 떠안았다. 6회에 내준 한 방은 치명타였다. 류현진은 선두타자 거너 헨더슨을 상대로 77.4마일(124.6km) 체인지업을 구사했으나 우월 솔로 홈런을 얻어맞았다. 이날 류현진은 장타 4개를 헌납했다. 그래도 희망을 봤다.

류현진은 주무기 체인지업(22개) 제구가 흔들리자 적재적소에 커브(20개)를 활용해 볼티모어 타선을 봉쇄했다. 특히 3-5회에 커브 제구가 잘되며 실점 없이 막았다. 류현진은 직구 33개를 던졌고, 평균 구속 89마일(143.2km)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은 91마일(약 146.5km)까지 찍었다. 류현진은 6회에도 시속 89.1마일(143.4km) 직구를 뿌리며 평균 구속을 유지했다. 투구 컨디션을 더 끌어 올린다면, 구속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상적인 스트라이크 비율도 보여줬다. 투구수 80개 중 스트라이크가 54개였다. 체인지업 제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제구는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 투구를 이어갈수록 제구가 향상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뉴스스



돌아온 괴물 류현진의 다짐... “구속·제구 나아질 것”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 “팀에 돌아와 기여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36)이 자신의 빅리그 복귀전을 돌아보면서 구속과 제구 향상을 다짐했다. 류현진은 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볼티모

어 오리올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9피안타(1홈런) 1볼넷 3탈삼진 4실점의 성적을 거뒀다. 류현진은 팀이 3-13으로 패하며 시즌 첫 등판에서 패전투수가 됐다.

지난해 6월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무려 426일 만의 등판이었다. 경기 후 류현진은 캐나다 토론토선을 통해 “다시 돌아와 매우 만족스럽지만 선발투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류현진의 직구 평균 구속은 89마일

(약 143.2km)이었고, 가장 빠른 공은 91마일(약 146.5km)이 나왔다. 제구는 이닝을 거듭할수록 안정감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체인지업 제구가 원활하지 않았다. 토론토선에 따르면 류현진은 “구속은 1~2마일(약 1.6~3.2km) 더 올라올 거라 생각한다”며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지지 못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령탑은 류현진의 투구에 만족감을 표했다. 뉴스스

경기 후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토론토 선과의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볼티모어 강타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초반부터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졌고 팀에 돌아와 기여한 점이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현진은 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클럽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스태프를 포함한 모두가 그의 복귀를 기뻐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스스

‘27년만의 세계 1위’ 안세영, 레전드 방수현 넘으려면...

안세영, 日 야마구치 끌어내리고 세계 1위 등극
방수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모두 금메달 획득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21·삼성생명)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앞서 27년 전 여자단식 세계 정상 차지했던 전설 방수현에 다가서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들도 있다. 안세영은 지난달 말 열린 일본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여자단식 세계 1위에 등극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9월6일부터 1위를 지켜온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위로 끌어내렸다.

안세영은 2018년 2월15일 처음 월드랭킹 점수를 얻어 1335위에 오른 이후 4년 5개월 만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최강자로 등극했다. 올해 참가한 11개 국제대회(개인전)에서 7차례 우승, 3차례 준우승, 1차례 3위 성적을 거두면서 랭킹 점수를 쌓았고 1인자였던 야마구치를 넘어섰다. 한국 단식 선수 중 안세영 이전에 마지막으로 세계 1위에 오른 선수는 2017년 9월21

일 남자단식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손완호(밀양시청)였다. 여자단식 선수로는 방수현(1996년 9월) 이후 안세영이 처음이다. 안세영이 세계 1위로 도약했지만 아직 방수현이 보여준 성적에 필적하려면 남은 단계들이 있다. 방수현은 명실상부한 한국 여자 배드민턴 전설이다. 방수현은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여자단식 은메달을 딴 데 이어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선수권에서도 1993년에 은메달, 1995년에 동메달을 땀다. 아울러 방수현은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올랐다. 여자단식과 여자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방수현은 2019년 한국 배드민턴 단식 선수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세계배드민턴연맹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이다. 방수현과 비교하면 안세영은 아직 입지를 다져나가는 단계다. 안세영은 이달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세계배드민턴개인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 대회에는 랭킹 점수 1만3000점이 걸려있다. 안세영이 이 대회에서 다른 상위권 선수에게 우승을 내줄 경우 1개월 만에 1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음달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7월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경우 세계랭킹 1위 입지를 굳혀나갈 수 있다.

최지만, 피츠버그 떠나 샌디에이고로...김하성과 한솔밤

샌디에이고, 트레이드 마감일에 최지만·힐 영입

최지만(32)이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떠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는다. MLB닷컴은 2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가 트레이드 마감일에 피츠버그에서 좌완 투수 리치 힐과 1루수 최지만을 영입했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는 좌완 투수 잭 울프, 외야수 에스투아르 수에로, 1루수 알폰소 리바스 등 3명의 유망주를 피츠버그에 내줬다. 좌타자와 구원 투수가 절실히 필요했던 샌디에이고는 이번 트레이드로 부족했던 부분을 메웠다. 최지만이 샌디에이고로 향하면서 김하성과 한솔밤을 먹게 됐다. KBO리그를 거쳐 미국로 건너간 김하성은 2021년부터 샌디에이고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지만은 2010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

고 프로에 뛰어들었고,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이적해 마이너리그 생활을 이어갔다. 2016년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입성한 후에는 뉴욕 양키스, 밀워키 브루어스, 탬파베이 레이스, 피츠버그 등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11월 탬파베이에서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된 뒤 9개월여 만에 다시 새 팀을 만나게 됐다. 최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509경기 타율 0.238, 67홈런 233타점 187득점의 성적을 냈다. 올해는 부상 여파로 23경기에만 나서 타율 0.205, 6홈런 11타점 9득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부상 회복 후 돌아온 뒤 14경기에서는 타율 0.268, 4홈런 9타점 6득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출전 여부가 결정되

는 플레튼 시스템에 적응을 받으면서 피츠버그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샌디에이고에서도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MLB닷컴은 “최지만은 샌디에이고가 찾고 있던 왼손 거포”라며 “최지만은 오른손 선수를 내세울 때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하고, 왼손 선발이 나오면 벤치에서 대타로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최지만에 대해 “이제는 팀 동료가 된 김하성이 간절하게 원하는 월드시리즈에 한국인 타자 최초로 출전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지만은 탬파베이 소속이던 2020년 월드시리즈에 출전, 준우승을 경험했다. 최지만과 함께 샌디에이고로 향한 힐은 통산 89승69패 평균자책점 3.93을 마크한 베테랑이다. 올해 7승10패 평균자책점 4.76을 수확했다.

황선우 “자유형 200m 후 회복 어려워”

“선천적으로 약한 체력, 노력으로 커버해야”...체력적 문제 보강 밝혀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가 2023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체감했다며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달 3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 출전해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2 한국신기록을 작성하고 동메달을 따냈다. 반면 자유형 100m에서는 준결승에서 48초08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계영 800m에서도 개인 기록에 미치지 못했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 도중 체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2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수영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메이저 대회를 하면서 자유형 200m 이후 다음날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200m에서 집중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 다음날에 많이 힘들고 부진한 기록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선우는 훈련만이 해법이라고 봤다. 그는 “보완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계속 병행하는 것 밖에 답이 없다”며 “선천적으로 약한 체력 부분을 노력과 수영으로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황선우는 자유형 200m와 100m, 그리고 남자 계영 800m, 혼계영 400m 등 단체종목을 뛰어야 해 체력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에 이어 200m 경기가 배정된 데 대해 “100m를 먼저 뛰는 것도 나쁘지 않다. 100m는 단거리고 짧은 것이라 부하가 200m보다 안 쌓인다”면서도 “하지만 그 사이에 단체전을 4개 소화해야 한다. 일정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힘을 발휘해서 단체전까지 잘 신경 써서 헤쳐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체력 보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황선우는 “이번에 체력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계영 800m에



황선우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영 선수단이 7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경영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1개를 따내고, 한국 신기록 8개를 작성했다.

서 개인 기록에 미치지 못해서 체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계속 훈련하지만 (체력) 눈에 띄게 늘지 않더라”라며 “그래도 체력 훈련 강도를 올려서 아시안게임에서는 많은 경기를 치러도 버틸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선우는 이번 세계선수권 자유형 100m에서 자신을 제친 중국 판잔리를 견제하며 아시안게임에서 설욕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중국 판잔리 선수가 자유형 100m에서 47초4대로 아시아신기록이라는 성과를 보여줬다. 판잔리가 200m에서는 부진했지만 베스트는 저와 비슷하다”며 “아시안게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선우는 자유형 200m와 100m에서 판잔리를 상대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잔리는 자유형 100m에서 후반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 아시안게임에서도 따라가는 입장이라 부담을 갖지 않고 따라가야 할 것 같다”며 “자유형 200m에서는 아직 제가 빠르지만 밤심하지 않고 레이스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스

홍명보, 울산 지휘봉 3년 더...“K리그 대표 리딩클럽 목표”

홍명보 감독이 프로축구 울산현대 지휘봉을 3년 더 잡는다. 울산과 홍 감독은 2026시즌까지 함께하는 3년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2021시즌 울산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지난 시즌 구단에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선물했다. 올 시즌에도 홍 감독은 울산을 이길 줄 아는 팀으로 만들고 있다. 올 시즌 리그 24경기를 소화한 상태에서 울산은 4번 역전승(홈 2경기,

원정 2경기)을 거뒀다. 홍 감독은 “지난 시간이 팀을 파악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울산이 K리그를 대표하는 리딩클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팬분들은 나와 우리 선수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다. 울산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